

농약, 유럽 · 미국기업 과점 심화

상위 6사 총매출액 80% 달해 ... 생존 위한 선택과 집중 가속화

유럽과 미국의 대형 농약 메이커의 시장점유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컨설팅기업 Phillips McDougall에 따르면, 2002년 세계의 농약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251억5000만달러로 특히 유럽과 미국의 대형 농약 메이커 상위 6사 매출 합계가 80%에 달했다.

종자, 바이오사업 매출을 제외한 농약사업의 세계순위는 Aventis Cropscience를 합병한 Bayer(Bayer Cropscience)가 1위이며 Syngenta, Monsanto, BASF, Dow, DuPont 순이다. 일본기업은 최대인 Sumitomo Chemical이 7위이며 Kumiai Chemical 12위, Ishihara Sangyo 14위, Hokko Chemical 1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본시장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대형 농약 메이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일본에서 출하되는 농약을 유효성분(원제)으로 보면 이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시장을 겨냥한 대형 신규 농약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외국계 메이커가 기존의 일본 메이커를 경유한 판매체제에서 직판체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정 비율이기는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농약산업은 세계적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메이커들도 사업의 선택과 집중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2002년에는 Sumitomo Chemical이 Takeda Chemical의 농약사업부문을 인수했으며 합작기업인 Sumitomo Chemical Takeda Agro가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2007년에는 Takeda Chemical이 보유한 합병회사의 주식 40%를 Sumitomo Chemical이 인수하게 된다. Sumitomo Chemical은 Mitsui Chemicals과의 사업통합이 백지화 되기는 했으나 국내 선두기업으로서 흔들림 없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2002년에는 Nissan Chemical이 일본 Monsanto의 제초제사업을, Nihon Nohyaku가 Tomono Agrica 및 Mitsubishi Chemical의 농약사업을 인수하는 등 사업재편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농약기업의 매출액 비교(2002)

(단위: 100만달러)

순위	회사명	농 약	종자/바이오	합 계
1	Syngenta	5,260	937	6,197
2	Bayer*	6,001	175	6,176
3	Monsanto	2,848	1,585	4,433
4	DuPont	1,793	2,016	3,809
5	BASF	2,795	0	2,795
6	Dow	2,525	192	2,171
7	Sumitomo Chemical	802	0	802
8	MAI	776	0	776
9	FMC	615	0	615
10	New Farm	564	0	564

† *는 Aventis 포함

자료) Phillips McDougall

2003년 4월에는 대형 제약 메이커인 Sankyo가 농약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100% 자회사인 Sankyo Agro를 설립하는 등 향후 사업존속,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Journal 2003/10/14>